



초생추 감별에 대한 考察

윤 경 중

<서울부화장 대표>

● 감별의 역사와 전망

◎ 감별의 기술

- ◇...월간양계로부터 감별에 대한 원고 청탁을 받고 미숙하...◇
- ◇...나마 감별에 대한 지식을 가지려는 독자를 위하여 선배...◇
- ◇...님들께 송구스러운 감은 비할 데 없으나 내가 국내외...◇
- ◇...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했던 것을 피력하려고 한다. ...◇
- ◇...글로 읽고 의문되는 점이 있는 분은 하시라도 대답해...◇
- ◇...드릴 것을 약속한다.◇

1. 감별 기술이 우리 나라에 들어오기까지

원래 초생추 자웅감별을 연구 발표하여 전세계의 가금업계의 경제 수익에 공헌한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이 닭에 대한 연구를 하게된 동기는 오리나 거위기 등의 조류는 보통 육안관찰로서 자웅 식별이 가능한데 병아리 등의 작은 조류라고 생식 구별이 안 될 원인이 없을 것이란 이론으로 일본의 수의학박사 마사이(増井清)씨가 연구 발표한 학설에 뒤를 이어 농학박사 하시모도(橋本座郎)씨와 국립축산시험장 기사 오노(大野勇)씨 등 3인이 연구 끝에 1925년에 이론을 발표했고 이의 이론을 받아 부화장 기사 오지마(小島學)씨와 사가야마(木神山勇藤)씨 등이 1927년에 실천에 옮기므로써(80%) 고가의 사료비를 들여 무작정 사육한 다음 육안 식별을 하여 도태한 병아리의 식별이 부화 직후 자웅 생식 감별이 되므로 오늘날에 온 세계 가금업자들에 많은 수익을 주게된 공헌이 될 것이다.

이를 알게된 우리 나라에서 남이 하지 않는 기술을 찾기 위하여 기술 습득차 많은 경비를 지출하면서까지 도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수년동안 노력한 끝에 완전히 기술을 습득한 후 돌아와 우리 나라 감별계의 씨를 심었다. 그 당시 우리 나라 가금계에 공헌한 사람을 생각나는대로 적으면 이정희·김영석·김계룡·계병현·강금노·이상수·장인길씨 등이며

(이의 몇 사람이 더 있다), 이 사람들이 많은 활동을 하게된 것은 우리 나라 가금 발전과 아울러 모계 부화사육을 탈피하고 기계부화가 시작되고 닭고기나 계란소비가 가증되면서부터인 6.25직후부터 감별기술은 보급됐던 것으로 안다.

2. 우리 나라 감별사가 전세계 시장의 부름을 받기까지

그간 활발히 활동을 해오던 선배 감별사들의 연명이 많아짐과 동시 각자 사업을 갖게 되므로서 감별에 손을 멀리하게 되었고, 그러므로서 국내 감별사의 손이 모자라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자 위의 선배들의 높은 아량으로 후배 양성에 몰두한 나머지 몇 사람의 희생 아래 부화협회 주체로 감별 양성생을 모집, 무료강습을 하여 매년 몇명의 감별사가 배출되었다. 이에 따라 각 부화장에서도 각자 개인지도로서 감별사가 배출되어 1960년경에는 우리 나라에도 충분한 감별사가 배출되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1933년 처음으로 감별사 파견을 시작하여 매년 구미 각국에 약 200여명의 감별사가 파견되어 이에서 벌어드리는 외화 획득액이 일본 축산업계에서 얻어지는 총액의 1/3을 차지한다고 한다.

우리 나라 감별사들도 해외 진출에 목표를 두고 수년간 세계 각국으로 많은 서신 연락 등 국제 각층으로 탐색하고 연구하는 등 과거 일정시

일본인과 같이 감별 파견차 영국에서 유학하고 귀국한 김계룡씨의 알선으로 1965. 1. 5일 필자가 도영(度英)한 것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감별사의 해외 진출이었다.

3. 외화 벌어들이는 한국 감별사의 해외 활동

감별에 대한 기술발표가 일본이라서인지, 우리나라 감별사의 해외 진출이 없었던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구미각국을 막론하고 일본 감별사 외에는 없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 필자는 가는 곳마다 많은 애로를 느끼곤 했다. 그리하여 분투 노력 끝에 도영 1년 후에는 몇몇 부화장에서 표창까지 받는 등 동지들을 이끌게 되었다.

이에 호응하여 국내에서는 사단법인체의 감별 협회가 구성되고 일부에서는 사설 강습소가 생기는 등 많은 후배들의 배출과 동시 후배들의 끈질긴 성원으로 4~5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구미 각국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나라 감별사들이 약 60~70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외화 획득은 물론 선진국 가금계의 제반 기술적인 문제를 연구 습득하여 국내에 보급하므로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많은 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다.

4. 우리 나라 감별사의 해외 진출에 대한 전망

구미 각국 감별사들의 동향을 본다면 과거 7~8년전에는 감별사들의 부족으로 일본인 감별사를 초청하여 감별하게 되므로 감별료가 비싸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그 나라 사람들이 감별을 배우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인들은 1~2%의 성적 차이나 시간당의 감별 수수(빠른 속도) 약간 저렴한 수수료 등으로 경쟁을 하다 보니, 감별에 대한 기술은 향상 되었고 수수료는 점점 저렴하게 되어 더 이상 떨어져서는 안 될 정도의 금액으로 현재에까지 이른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국민소득이 높아지는 선진국에서는 감별사의 수익액이 적어지므로서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 감별을 배울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또한 과거에는 감별사를 기술자의 대우로 급료를 지불했으나 감별사의 파임으로 선진국에서는 노동자의 대우였고, 후진국에서는 기술자의 대우를 받아, 각국의 감별료는 그 나라의 국민소득에 의하여 차이는 있으나 다른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선후진국의 감별사 급료액 차이는 거의 없는 것이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자기 나라 감별사의 수입보장을 위하여 외국의 감별사를 입국시키지 않는 곳도 있다.

한편 지두 감별이 아닌 기계(Chick tester) 감별기가 만들어졌다. 많은 사람들은 기계 감별기가 많이 성행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감별에 많은 시간을 요하고(시간당 지두) 1,200~1,500수, 기계 800~1,000수) 병아리에 심장 파열로 인한 폐사, 감별시 흥분 주입시에 대한 쇼크 등으로 사육자들의 환영을 못받고 있으며, 기계 사용도 불편하여 근간에는 전연 사용하지도 않는 실정이나 단 미국의 넓은 지역에서의 두메에는 감별사의 차지가 안 되어(거리·수수 등 감별사의 수익관계) 현재도 기계 감별기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았다.

지금까지는 채란계만이 감별을 해오던 것이 영국에서 부로일러 자웅 구별 사육시험 결과 사육육성비 절감이 감별로 지불문제가 아니라는 뜻에서 현 영국에서는 부로일러 전부를 감별해 솟놈은 우리 나라에서 산란계 암놈과 같은 고가의 가격을 받고, 암놈은 우리 나라의 웅추 영계 사육자들이 길러 조그만 덩이의 닭고기를 내는 정도로 하고 있어 그들에게 예매하고 매매가 안 되는 것은 모두 초생추시에 죽여 없애 버린다.

이상과 같이 부로일러 감별사는 국민소득에 비추어 감별 습득 불허, 기계감별기의 퇴폐, 국민소득이 낮은 우리 나라 수익 동향 등을 참작한다면 절대적으로 한국감별사들의 진출 전망이 밝다고 필자는 강조하고 싶다.

5.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나라 감별사에게

감별이란 기술이라고 보겠지만 절대적인 것은

많은 병아리와 시달림 받는 숙련에 있다고 본다. 어느 부분을 막론하고 숙련은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많은 숙련을 쌓아가고 나가므로서 국제시장 개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것은 우리 나라 감별사가 하는 이야기지만 선진국에는 모든 제품이 충실하고 좋듯이 병아리도 좋은 기계에서 나오니까 감별이 용이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간간히 듣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감별이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대략 5~8 가지 종자가 형성색색으로 나오는 때문에 감별에 아주 불편을 주고 지루하여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서는 애로를 느끼는 때가 많은 것이다. 외국에서 감별을 하게 되면 대략 부화장이 큼으로 많은 병아리가 발생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나라 감별사들이 같은 자리에서 감별하게 된다. 그러나 같이 한다고 하여 감별료를 분할하는 것이 아니고 작자가 시간당 감별한 수수료에 의하여 수익을 갖게 되므로 인간은 욕심을 갖다 보면 성적이야 어떻든 많은 수수를 감별하려는 것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동일하다. 이렇게 하다 보면 감별이란 실수가 반드시 따르게 된다.

이런 현실을 같은 자리에서 감별하면서 필자가 직접 신사를 자칭하는 영국인과 일본·미국 등의 감별사에게 직접 지적한 일이 한두번이 아니다.

현재 외국에 파견되는 감별사들의 수익이 좋다는 사실이 곳곳에 보도되자 다른 일로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이 기회가 있으면 아르바이트라도 할 심산으로 수개월 감별 연습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비숙련)이 많이 있는 것을 본다. 반면 숙련된 감별사로서는 파견 진출이 비교적 부진한 편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직접 본 일이지만 이사람들의 활동으로 후배 진출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뼈아픈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욕망 때문에 벗어나 후배, 나아가서는 국가에 해를 주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현재 우리 나라 감별사들의 해외 진출이란 아직 처녀 진출이고 또 이들은 개척자이므로 다소 희생이 있겠으나 각오를 새로이 하여 세계 각국에 한국 감별사의 씨를 명백히 심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므로서 후배 진출에 좋은 터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현재 감별협회는 정부의 보조에 힘입어 많은 감별사들을 양성은 물론, 파견에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들도 현실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열쇠를 쥔 진출국의 실정을 알아 더 많은 진출이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각국에 자리잡고 있는 대사관과 영사관 등도 공사에 바쁠 것이나 적극 협조하여 주도록 부탁하는 바이다.

전국 ★ 사료

전국배합사료공업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양동 544-7 교환 ②2182-7 ②9284